

이낙연 갈팡질팡 정치행보... 결국은 '민주당 쪼개기'

개혁신당과 통합 11일만에 파탄... 명분도 실리도 다 잃어
민주당 하위 평가 의원들에 '손짓'... 지역민·정치권 '분통'

개혁신당의 총선 지휘권을 놓고 이준석 공동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이낙연 공동대표가 통합 선언 11일 만인 20일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총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뜻밖의 '제3세대 빅텐트'가 완성됐지만, 정치적 이념·가치가 다른 두 세력의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정치권의 예측대로 다시 각자도생을 하게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에게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논리로, 지역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감행했던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번에는 지휘권을 안 준다는 이유로 또 분당을 선택했다"면서 "이젠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처신에 답답할 따름"이라는 분위기가 흘러 나온다.

특히 새로운미래측이 민주당의 하위 평가 의원들을 영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호남류의 총리와 당대표, 전남지사, 국회의원 등을 지낸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철새' 정치인과 다름없는 행보로 민주당 총선을 망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같은 새로운미래 출신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 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 표결로 강행처리됐다"며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격 대안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이낙연 공동대표는 전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을 공고한 '새로운미래'의 대표를 맡아 '이낙연계'를 이끌고 총선을 치르게 됐다.

지난 9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승현 의원의 원칙과상상이 발표한 합당 선언이 11일 만에 파기된 것이다.

통합 개혁신당이 출항 초반에 좌초함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양당에서 맞서 3자 구도를 만들겠다는 제3세대의 총선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 결별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선거 지휘권 주도권 다툼으로 좁혀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지역구 출마, 공관위원장과 당직 인선, 정책 공약 발표 등의 문제를 두고 이준석계와 이낙연계가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의 불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총선 주도권을 놓고 갈등 해온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전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미래 측의 반대에도 이준석 공동대표의 요구로 총선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권한을 이준석 공동대표에 위임하는 안건이 의결되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는 이준석 공동대표에 사실상 선거 관련 전권을 부여하는 조치로, 이낙연계는 이낙연 공동대표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당의 원칙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실상 이낙연 공동대표가 총선에서의 지휘권 등을 잃으면서 결별이라는 결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찢어진 빅텐트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20일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오른쪽은 이날 여의도 새로운 미래 당사에서 합당 철회 기자회견 하는 이낙연 공동대표. 한 시간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이준석 공동대표. /연합뉴스



한 달에 한 번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어때요? ▶7면

KIA 캔버라 캠프 -정해영 "기록보다는 우승"▶18면

세계의 문화도시 -디자인 천국 샌디에이고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정부,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 321명에 업무개시 명령

어길 경우 면허정지 처분 가능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관련기사 6면〉

20일 전남대·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파견, 전남대·조선대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이들 병원 이탈 전공의 321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전체 전공의 319명 중 266명이 시작서를 제출

한 전남대병원에서는 이날 기준 20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조선대병원 전공의 114명에게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시작서를 낸 전공의는 전체 142명 중 108명이지만, 진료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포함한 114명이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의료 현장에 복

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21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 미복귀자에 대해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하고 강제이행명령까지 내릴 방침이다.

만약 강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불이행확인서 증명 내용을 토대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여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총회 회의를 마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협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이탈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역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집단 행동에 동참했다.

조선대 의대는 20일 현재 신입생을 제외한 625명 재학생 중 90% 이상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전남대 의대는 재학생 731명 중 282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지만 사전 휴학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에 97% 이상이 찬성한 만큼 휴학계 제출은 잇따를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